

“제2우주센터·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고흥으로”

군, 온·오프라인 범군민 서명운동…SNS 등도 활용
군민 목소리 정부에 전달…우주항공복합도시 완성

고흥군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핵심인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에 집중한다. 2일 고흥군에 따르면 국가 우주항공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제2우주센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한다.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과 국가 핵심 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개별 법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12월 2일 문급주·서천호 의원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대표 발의하고, 4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동참

했다. 군은 특별법 조속 제정과 핵심 인프라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서명운동을 추진하게 됐다.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오프라인 서명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서명은 2일부터 고흥군 대표 누리집과 공식 SNS 채널의 배너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 주요 시설에 홍보 현수막과 배너를 게시하고, 오는 5일 재경고흥향우회 행사를 시작으로 각종 행사장에 서명운동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군은 서명운동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건의 활동을 강화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과 국가 핵심 우주 인프라 유치를 통해 ‘한국형 스타베이스(Starbase

)’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과 제2우주센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는 고흥군을 넘어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다”며 “범군민 서명운동을 통해 정책적 필요성과 군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광양시가 올해부터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를 본격 시행한다.

‘젊은 도시’ 광양, 청년 정책 참여 확대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 본격 시행

광양시가 올해부터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를 본격 시행한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청년 인구가 5만 2358명(2025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 15만5259명의 33.7%를 차지하며, 청년층이 지역 경제와 사회 활동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시에는 13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개 위원회에 청년이 위촉돼 있다. 시는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위원 위촉 확대에 앞서, 지난

해부터 광양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청년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는 청년 인력풀(DB)을 조성해 왔다. 광양시 관계자는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에 걸맞게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 전반에 고르게 반영돼야 한다”며 “청년위원 20% 의무제 시행을 통해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227개 정부위원회의 청년참여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하고, 올해 초 청년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



곡성, 산불·산사태·병해충 예방 집중

산림재난대응단 발대

곡성군은 최근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회의실에서 산림재난대응단 및 읍면 산불진화대 발대식을 열고,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올해 운영되는 산림재난대응단 인력은 총 61명으로, 산림재난대응단 28명과 읍면 산불진화대 33명으로 구성됐다. 발대식에서는 산림재난대응단의 임무와 역할을 공유하고 선서문을 낭독하며 책임 의식을 다졌다. 이어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해 현장 활동 중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산림재난대응단은 산불 대응뿐 아니라

산사태 예방과 병해충 예방까지 함께 수행하면서 연중 체계적인 산림 재난 대응에 나선다. 군은 평년보다 건조한 봄철 기상 여건에 대비해 산불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소각 행위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를 맞아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예찰과 초동 대응에 집중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에까지까지 관리하는 산림재난대응단의 임무가 막중하다”며 “재난대응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여수, UN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개최지 확정

탄소중립 모델 제시·기후변화 대응 모색

여수시는 최근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Climate Week)’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2일 밝혔다. UN 기후주간은 매년 당사국 총회(COP)를 앞두고 협약당사국 정부, 국제기구 등 1000여명이 모여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1만4000여명의 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지난해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한 국내 개최 후보지 공모에서 여수시가 최종 선정된 이후 정부, 전남도, 여수시, 국제기구, 시민사회와 협력해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며, 지난해 12월 시민 참여형 유치 활동을 위한 범시민위원회

회도 출범했다. 특히 시는 지난 2008년부터 국내 최초로 ‘기후보호주간’을 개최해 온 선도적인 기후행동 도시로 해양 생태계 보호를 주제로 한 ‘여수선언’을 발표하는 등 기후·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번 행사는 기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국제주간 행사와 병행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 UN 기후주간 개최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기회가



여수시가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Climate Week)’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2028년 COP33 유치를 위

한 국회의회의 개최 역량을 확보하고 기후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지난달 29일 ‘2026년 순천시 해설사 위촉식’에서 해설사들이 K-치유도시 순천 실현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 K-치유관광도시 본격화

해설사 108명 위촉…관광 서비스 고도화

순천시가 K-치유관광도시 구축, 관광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해 나섰다. 순천시는 최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순천시 해설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순천시 해설사 108명을 공식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2026년 3000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위촉식에는 지난해 통합 모집 공고로 통해 선발된 문화·관광·역사·치유 등 7개 분야의 전문 해설사들이 참석해 K-

치유도시 표준모델 순천의 비전과 향후 역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촉된 해설사들은 올해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 주요 관광지와 관광안내소, 기획투어 현장에서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설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일상적인 소통부터 전문적인 해설까지 폭넓은 관광 해설을 제공해 관광객들의 이해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3000만 관광인구

실현을 위해 해설사들의 역할이 핵심적이다”며 “순천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순천의 매력을 알리는 데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교육과 워크숍, 분야별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최신 관광트렌드와 해설 기법을 반영해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장흥,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 ‘은힘’

역량강화 교육·컨설팅 진행

장흥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국고 예산 확보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예산 과정의 이해 및 국비 확보 대응 전략’을 주제로 국고 예산 확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중심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강의는 박주선 전남도 예산담당관실 국고예산팀장이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국비 예산 편성과정, 국비사업 요구 시 검토사항, 국비 확보 전략, 사례 연구 순

으로 설명했다. 군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국고 예산 확보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도·중앙부처·기획예산처 등 상위 기관에 보다 적절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장흥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국비 사업에 반영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교육 후에는 장흥군의 2027년도 국고 건의사항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사업 담당 팀장, 담당자들이 참석해 사업별 방향성과 보완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장흥=정영수 기자 jms050311@

보성물, 4~6일 최대 20% 특별 할인

보성군은 설 명절을 맞아 4~6일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보성물’에서 최대 20% 할인과 다양한 적립 이벤트를 결합한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보성물 회원에 대상으로 1회 3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0% 할인이 적용되며(일부 품목 제외), 일일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 당일 할인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종료 시 이벤트는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다시 진행된다. 또한 신규 회원 가입 시 3000p 지급, 출석 체크 시 100p 적립, 상품 구매 시 결제 금액의 3% 적립, 구매 후기 작성 시 최대 300p 제공 등을 마련해 소비자의 만족도

와 구매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보성물에는 보성 차, 귀위, 벌교 꼬막, 녹두, 울베쌀 등 1000여개 품목 농특산물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보성물은 지난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연간 2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보성물 할인 행사는 소비자에게는 실속 있는 소비 기회가 되고, 농가에는 든든한 판매 기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경쟁력을 높여 군민과 농가가 함께 웃는 지역경제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